



전주교대 교수 3명, 대학발전기금 1200만원 기탁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서현석·신윤경 교수와 미술교육과 이민선 교수가 도서관 개축을 위한 시설확충 모금 캠페인에 동참, 총 1,2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날 전주교대에 따르면 대학발전기금 기탁식은 27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서현석 교수가 1,000만원, 신윤경 교수와 이민선 교수가 각각 100만원을 기부해 총 1,2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이 모였다.

교수 3인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새로운 도서관이 학생들의 성장과 지역사회 교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준 총장은 “대학에 한마음으로 이바지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기탁된 발전기금은 도서관 개축사업 및 우리 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평생교육원, 파크골프 지도자 1기 배출

전주비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 지도자과정 1기가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지난 26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파크골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총 51명이 지원해 전원 수료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기초 이론과 실기, 지도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 단순 동호인 차원을 넘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료생 대표 김정권 씨는 “교육 과정에서 함께한 동료들과의 교류가 큰 힘이 됐고, 배운 것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전파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은성 평생교육원장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지도자 양성은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수료생들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건강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 평생교육원은 현재 파크골프 지도자과정 2기와 최고위과정을 모집 중이다. /장은성 기자



장수경찰서장, 노인대학 어르신 대상 특강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지난 26일 장수군 사회복지회관 2층에서 노인대학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노인대학 학생인 어르신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이 안전한 장수, 범죄예방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경찰서 현황과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소개한 후 장수 군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수경찰에 대해 설명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서,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지난 26일 천천면 여름쉼터 반월마을 주민 7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검거 사례 및 신종수법(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납치 빙자형, 메신저포싱형, 물품포싱형 등)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를 실시 하였다.

이와 관련 천천파출소(소장 김중수)는 직접 1대1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시티즌코난 앱’ 설치와 사용방법, 홍보용 팸플렛 배포 등 피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켜 호응도를 높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신성건설 이용호 대표, ‘동탑산업훈장’ 영예

건설의 날 맞아... 국토교통부장관상 강호건설 배문식·석영건설 이성모 대표 수상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거행된 ‘2025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회 (주)신성건설 이용호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유)강호건설 배문식 대표, (유)석영건설 이성모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주)신성건설 이용호 대표는 35년간 국책사업의 성실시공으로 국가기반 인프라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하고 하도급대금 전액 현금 지급과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업체를 운영하며 선도적으로 건설업계의 상생 경영을 실천해 왔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 노사 간의 신뢰 구축과 교육비 지원을 통해 건설기술 인재 양성에도 앞장섰다. 특히 품질관리와 안전보건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사 내에 별도의 품질팀을 운영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 으며, 이를 바탕으로 7년 연속 중대 사망재해 ‘제로(0)’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크게 기여 했다.

이 외에도 수해 복구와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고, 임대아파트·행복주택·병원 건립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상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한 (유)강호건설 배문식 대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뛰어난 관리능력을 겸비한 건설인으로서 신뢰를 중요시하는 회사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건설 활성화와 동반성장, 건설안전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유)석영건설 이성모 대표는 성실시공과 창의적 혁신을 통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와 나눔을 통해 국민 편익사업 성실시공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선 공로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오상근 기자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 전국대회 제패 ‘지역 위상 높여’

제61회 국무총리기·종별 선수권대회서... 개인·복식 종목 두루 입상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전국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하며 또 한 번 지역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지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충북 옥천 중앙공원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제61회 국무총리기 및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순창군청 선수단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와 대학부를 비롯한 32개 부문에서 총 320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전을 펼쳤다.

특히 순창군청 선수들은 개인 복식과 단식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였다. 여자 개인복식에서는 하야시다 리코(순창군청)·안지혜(부산시 사하구) 조가 탄탄한 조직력과 집중력을 앞세워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개인단식에서는 오승규 선수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정상에 올랐다.

또한 남자 개인복식의 윤형욱·김병국 조는 끝까지 분투했으나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 밖에도 혼합복식 리



코·진인대 조, 여자 개인복식 리코·신유나 조, 여자 개인단식 하야시다 리코 선수가 각각 3위에 입상하며 풍성한 메달 수확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 성과는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과 팀워크가 빛어 낸 결실로, 순창군 체육의 저력을 전국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순창=이왕형 기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느린학습자 아동 지원사례 발표회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이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공개사례발표회를 갖고,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아동의 효과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현영 전북지원단장, 서현정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상담과 학과장, 김혜진 함께하는심리상담센터 소장 등 전문가들이 수퍼바이저로 참여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전문적 지문을 더했다.

김서현 운영위원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느린학습자 아동을 위한 개입 모델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전문성과 포용성을 확장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현영 단장은 “현장의 실천 경험을 기반으로 개입 방향



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전북 지역 28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063-227-5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제9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6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제9기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CEO와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도 9기를 맞은 최고경영자과정은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AI 시대에 대응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12월 16일까지 16주간 진행된다.

특히,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확대와 소통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전주대 RISE 사업단장인 한동욱 교수는 “AI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업과 지역, 국가를 혁신하고 선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중,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농구대회서 우승

전주기전중학교가 지난 23~25일 상주시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농구대회’에서 전북 대표로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40개팀, 7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팀을 구성하는 혼합팀 경기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전주기전중은 3학년 3명, 2학년 5명, 1학년 5명으로 이뤄진 혼합팀을 구성, 4강전에서 온양여중을 28:1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 서울 구일중학교를 접전 끝에 35:34로 누르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특히 3학년 김예린 학생이 대회 MVP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훈련비와 훈련용품 등을 매년 지원했으며, 우수 선수 발굴과 지도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WKBL(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과 연계해 도내 여자 학교스포츠클럽 농구수업 지원사업을 추진 하는 등 여자농구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노안동, 실버카 네임택 부착 순차 추진

남원시 노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는 어르신들의 보행 보조기구인 실버카에 네임택을 부착하는 사업을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실버카는 저마다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어 소유자 구분이 되지 않아 그동안 분실과 도난 문제가 있었으며, 이 사업으로 분실 우려를 최소화하였다.

네임택은 형광색 실라콘 재질로 제작하여 멀리서도 눈에 잘 보여 본인 실버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물과 오염에도 강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차미화 노안동장은 “실버카는 어르신들의 외출 필수품으로, 네임택 부착을 통해 분실 시에도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청각장애인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의식 향상과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화 통역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계획하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전북119상담록’을 활용한 신고 및 응급상담 방법을 홍보하고, 전북119상담록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19신고, 응급의료 상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 등 음성 통화가 어려운 사람들도 위급상황 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제1차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김제시립도서관(시장 정성주)은 지난 26일 도서관 5층 배움터 3강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22조~제25조에 근거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운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신규 운영위원 소개 및 부위원장 선출, △2025년 도서관 주요 업무 보고, △도서관임의 및 건의 사항 청취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높은 신규 운영위원들이 합류하고, 당연직인 박원용 시립도서관장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도서관 운영위원들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보다 나은 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곽도태 기자